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3, No. 7 pp. 2886-2894, 2012

http://dx.doi.org/10.5762/KAIS.2012.13.7.2886

피부건강에 대한 인식과 관리에 관한 연구
-피부미용 전공과 비전공 여대생을 중심으로-

최성임[1*], 권영낭[2], 이계영[3]
[1]명지전문대학 피부미용과, [2]권영낭 피부미용연구소, [3]순천제일대학 뷰티케어과

A Study on Skin Health Knowledge and Treatment
-The case of female college students major and non-major in skin care-

Choi, Sung-Im[1*], Kwon, Young-Nang[2] and Lee, Geai-Young[3]
[1]Dept. of Skin Care & Beauty, Myongji College
[2]Kwon Young Nang Esthetic Laboratory
[3]Sun Cheon First College Beauty Care

요 약 본 연구는 서울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대생을 대상으로 피부미용전공과 비전공 여학생들의 피부건강관리의 관심도와 피부상태, 인식 및 관리 행위의 차이점 및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전공자들과 비전공자들의 대한 비교 분석은 동일한 생활권에서 궁극적으로 전문 학습과 비 전문학습의 일반적인 상태에 대한 지식과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전공 여대생이 비전공 여대생에 비해 피부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1). 피부미용 전공 여대생은 복합성 피부, 비전공 여대생은 건성 피부가 많은 것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5). 피부 관리 실태에서 색조화장 후 전공여부에 따른 이중세안 정도, 각질 정리 횟수, 마사지나 팩 관리횟수, 선크림 사용 항목에서 각각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1, p<.001, p<.01, p<.01). 오백식품 및 인스턴트식품의 영향정도와 수분섭취 항목에서 각각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1).(p<.05). 화장품 사용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효율적인 구매를 하는 경향이었으며, 탁월한 기능이 있을 때는 경제적 부담이 있어도 구입 의향 항목에서 적극적인 성향인 것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001). 본 연구의 결과는 피부미용 산업 및 교육 분야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고자 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s intended to research female university students' concern with beauty care, their skin condition, knowledge and treatment comparing the majors with the non-majors in Seoul. This comparative study between them focused on their educational and behavioral differences in beauty care in the same living space, an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majors' average point on the concern with skin health care was higher than the non-majors(p<.01). There were more combination skin type in the major group, and more dry skin type in the non-major group. Also, there were meaningful differences among the two groups in frequency of double cleansing after makeup, exfoliating, massaging or applying mask packs, using sunscreen(p<.01, p<.001, p<.01, p<.01). Further, intake rates of instant food and moisture were meaningfully different between them(p<.001, p<.05). In addition, the majors more tended to purchase cosmetics efficiently through lots of channels, and showed more active attitude to buy high-price cosmetics with outstanding properties although they have financial burden(p<.001). It was hop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ould be used in skin care industry and education area in the future.
Key Words : Skin health, Skin knowledge, Skin treatment, Beauty care, Skin condition

*Corresponding Author : Choi, Sung-Im
Tel: +82-10-3339-3779 email: sichoi7@naver.com
접수일 12년 04월 05일 수정일 (1차 12년 05월 30일, 2차 12년 06월 18일) 게재확정일 12년 07월 12일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근래에 등장한 얼짱, 몸짱, 에스(S)라인, 브이(V)라인, 꽃미남, 훈남, 메트로섹슈얼(Metro Sexual)이라는 신조어가 있다. 즉 '외모지상주의(Lookism)'는 외모(용모)가 개인 상호간의 우열뿐만 아니라 인생의 성패까지 좌우한다는 풍조이다. 평범한 사람들도 이제 자신만의 용모와 패션의 독특한 개성이 없으면 사회적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회 이상적 강박관념'의 기류가 형성이 되고 있다.

신체이미지란 체험적으로 지니고 있는 자신의 신체에 의한 의식이나 심상을 말하며, 개인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형성하고 있는 통합된 인식과 지각으로 신체에 관한 인지적 지식 뿐 아니라 소망, 감정적 태도, 타인과의 상호작용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라 주장하였다.[9] 자신의 신체 이미지를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가는 그 사람의 사고와 행동 심리적 안녕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신체 불만족 수준이 높을수록 대인관계(social anxiety)정도가 높다는 연구결과는 자기 신체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개인의 삶에서 차지하는 기능의 중요성을 짐작케 한다. 여성의 자기존중감은 외모에 대한 매력지각과 상관이 높은데 비해, 남성은 신체의 능력과 기능에 대한 평가가 주로 자기 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10] 이 같은 현상을 신체나 외모의 아름다움이 여성에게 특별히 중요한 특성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사회 문화적 미의 이미지를 더욱 특별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대중문화의 열기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멋있는 남자가 성공한다.' 피부미용과 패션에 대한 관심은 이제 여성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그 대열에 이제 남성들도 가세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다. 오늘날 여성들의 외모에 대한 관심은 변화가 가능한 얼굴이나 피부에 집중되고 있다.[6] 여성들의 고학력화, 개인의 가치관 및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에 대한 요구가 양·질적으로 심화되었고, 외모의 중요성에 대한 고취는 멀티미디어, 고령화 사회 등이 영향을 받는 가운데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후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으며, 사회인식과 외모와는 관련이 있다.[4]

피부건강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피부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된 요인으로서 식습관, 식품, 영양, 항산화식품, 기능성식품, 화장품, 스트레스, 생활환경, 흡연, 각종 약용 식물 추출물을 이용한 효과 등 직접적인 영향과 효과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간접적인 인식과 관리 분야에 관한 연구로는 외모관리 및 자아존중감, 관리프로그램 등 다수 발표되고 있으나, 피부건강에 대한 인식과 지식의 차이가 관리 및 실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외모관리에 가장 민감한 시기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여대생들 중에서 피부미용전공과 비전공 여대생을 대상으로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인식과 관리 행위에 관한 비교를 통하여, 인식과 지식의 차이가 관리 및 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피부건강에 대한 인식과 관리행위 결과물들의 상이성과 일반적인 지식과 관리행위의 세부 문항, 다양성, 통일성 등을 아울러 조사 및 비교분석 하였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피부미용전공 여학생들의 피부건강관리의 인식 및 관리 행위를 비전공 학생들과의 차이점을 파악하여 피부건강관리를 위한 올바른 지식 전달과 보다 효율적이며 실천적인 피부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첫째, 피부상태 및 관심도를 조사한다.

둘째, 생활 및 피부관리 실태와 방법을 조사한다.

셋째, 피부건강 요인 인식과 화장품의 구매와 사용실태를 조사한다.

넷째, 상기 각 항목별 피부미용 전공여부에 따라 차이점 및 상관관계를 조사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소재 S 대학교의 재학 중인 여자 대학생 1학년 260명(52.4%), 2학년 216명(43.5%), 3학년 17명(3.4%), 4학년 3명(0.6%) 총 496명이었다. 모든 조사는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2010. 09. 27 ~ 2010. 10. 08까지 13일간에 걸쳐서 본 설문지를 연구대상자들에게 직접 배부하여 자기기입식으로 현지에서 작성하게 하고 회수하였다.

2.2 연구도구

연구대상자의 피부건강에 대한 인식과 관리를 알아보기 위하여 외모관심도 4문항, 피부관심도 4문항, 생활실태 3문항, 피부미용 관리실태 6문항, 피부건강관리 인식도 10문항으로 측정하였다.

2.3 통계처리 및 분석

자료 분석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데이터 코딩(data coding)과 데이터 클리닝(data cleaning)과정을 거쳐,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v. 12.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유의수준은 5% 이내에서 검증하였고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피부건강관련 특성, 피부건강을 위한 관리,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인식도, 화장품 구매와 사용실태에 대해 알아보고, 피부미용 전공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및 고찰

3.1 조사대상자의 외모관심 및 피부미용

다음 표 1은 외모관심 및 피부미용에 관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조사대상자는 1학년 260명(52.4%), 2학년 216명(43.5%), 3학년 17명(3.4%), 4학년 3명(0.6%)이었다. 외모 관심도는 '매우 높다.' 106명(21.4%), '높다.' 195명(39.3%), 보통 176명(35.5%), '낮다.' 16명(3.2%), '매우 낮다.' 3명(0.6%)이었다. 피부미용 서비스 경험은 '있다.' 285명(57.5%), '없다.' 211명(42.5%)이었다. 피부 관리 이유는 '자신의 만족감'이 362명(73.0%), '타인과 미적 경쟁심' 58명(11.7%), '웰빙 트렌드' 34명(6.9%), '학교생활' 24명(4.8%), '이성 친구' 18명(3.6%)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외모관심 및 피부미용
[Table 1] Interest in appearance and skin care of the subjects N(%)

구분		피부미용 전공여부		합계
		전공	비전공	
학년	1학년	111(54.1)	149(51.2)	260(52.4)
	2학년	90(43.9)	126(43.3)	216(43.5)
	3학년	4(2.0)	13(4.5)	17(3.4)
	4학년	0(.0)	3(1.0)	3(.6)
자신의 외모관심도	매우 높다	57(27.8)	49(16.8)	106(21.4)
	높다	85(41.5)	110(37.8)	195(39.3)
	보통이다	62(30.2)	114(39.2)	176(35.5)
	낮다	1(.5)	15(5.2)	16(3.2)
	매우 낮다	0(.0)	3(1.0)	3(.6)
피부미용 서비스 경험	예	132(64.4)	153(52.6)	285(57.5)
	아니오	73(35.6)	138(47.4)	211(42.5)
피부관리 이유	이성친구	4(2.0)	14(4.8)	18(3.6)
	타인과 미(美)적 경쟁심	26(12.7)	32(11.0)	58(11.7)
	학교생활	12(5.9)	12(4.1)	24(4.8)
	웰빙 트랜드	23(11.2)	11(3.8)	34(6.9)
	자신의 만족감	140(68.3)	222(76.3)	362(73.0)
합계		205(100.0)	291(100.0)	496(100.0)

3.2 피부상태 및 관심도

다음 표 2는 피부상태 및 관심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다. 피부상태는 전체적으로 볼 때, '매우 좋다.' 18명(3.6%), '좋다.' 96명(19.4%), '보통이다.' 241명(48.6%), '나쁘다.' 129명(26.0%), '매우 나쁘다.' 12명(2.4%)으로, 전체의 23.0%가 현재 피부상태가 좋다고 응답하였다. 피부건강 관심도는 전체적으로 볼 때, '매우 높다.' 104명(21.0%), '높다.' 211명(42.5%), '보통이다.' 161명(32.5%), '낮다.' 17명(3.4%), '매우 낮다.' 3명(0.6%)이었다. 피부미용 전공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1$). 얼굴피부타입에 있어서는 '복합성'이 166명(33.5%)으로 가장 높았고, '건성' 155명(31.3%), '지성' 103명(20.8%), '정상' 53명(10.7%), '모르겠다.' 19명(3.8%)순으로 나타났다. 피부미용 전공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피부 문제점은 '여드름, 넓은 모공, 피지'가 226명(45.6%)으로 가장 높았고, '색소침착' 149명(30.0%), '주름 및 탄력저하'가 57명(11.5%), '건성, 아토피성 피부' 36명(7.3%), '예민, 모세혈관확장' 28명(5.6%)순이었으며, 피부미용 전공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1$).

[표 2] 피부상태 및 관심도
[Table 2] Skin conditions and interest N(%)

구분		피부미용 전공여부		합계	χ^2 (p)
		전공	비전공		
피부상태	매우 좋다	6(2.9)	12(4.1)	18(3.6)	4.667 (.323)
	좋다	38(18.5)	58(19.9)	96(19.4)	
	보통이다	110(53.7)	131(45.0)	241(48.6)	
	나쁘다	48(23.4)	81(27.8)	129(26.0)	
	매우 나쁘다	3(1.5)	9(3.1)	12(2.4)	
피부건강관심도	매우 높다	51(24.9)	53(18.2)	104(21.0)	19.716** (.001)
	높다	102(49.8)	109(37.5)	211(42.5)	
	보통이다	47(22.9)	114(39.2)	161(32.5)	
	낮다	5(2.4)	12(4.1)	17(3.4)	
	매우 낮다		3(1.0)	3(.6)	
얼굴피부타입	건성	56(27.3)	99(34.0)	155(31.3)	9.761* (.045)
	지성	45(22.0)	58(19.9)	103(20.8)	
	정상	22(10.7)	31(10.7)	53(10.7)	
	복합성	79(38.5)	87(29.9)	166(33.5)	
	모르겠다	3(1.5)	16(5.5)	19(3.8)	
피부문제점	여드름, 넓은모공, 피지	108(52.7)	118(40.5)	226(45.6)	19.534** (.001)
	색소침착(기미, 주근깨, 잡티, 다크써클)	51(24.9)	98(33.7)	149(30.0)	
	주름 및 탄력저하	13(6.3)	44(15.1)	57(11.5)	
	건성, 아토피성 피부	16(7.8)	20(6.9)	36(7.3)	
	예민, 모세혈관 확장	17(8.3)	11(3.8)	28(5.6)	
합계		205(100.0)	291(100.0)	496(100.0)	

*p<.05, **p<.01

3.3 생활실태

다음 표 3은 생활실태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다. 흡연 여부 및 시기에 있어서는 '전혀 못한다.'가 338명(68.1%)으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이전부터' 85명(17.1%), '대학 입학 전부터' 58명(11.7%), '대학 1학년부터' 13명(2.6%), '대학 2학년부터' 2명(0.4%)순이었다. 피부미용 전공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5). 음주횟수는 '마시지 않는다.'가 115명(23.2%)으로 가장 높았고, '주 1회 이상' 111명(22.4%), '한 달에 한번' 100명(20.2%), '주 2회 이상' 98명(19.8%), '2주 1회' 72명(14.5%)순이었다. 피부미용 전공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1). 수면시간은 '6~7시간'이 252명(50.8%)으로 가장 높았고, '5시간미만' 137명(27.6%), '8시간' 82명(16.5%), '9시간' 15명(3.0%), '10시간 이상' 10명(2.0%)순으로 나타났다.

[표 3] 생활실태
[Table 3] Life actual Condition N(%)

구분		피부미용 전공여부		합계	χ^2 (p)
		전공	비전공		
흡연 여부 및 시기	대학 입학 전부터	30(14.6)	28(9.6)	58(11.7)	10.795* (.029)
	대학 1학년 부터	9(4.4)	4(1.4)	13(2.6)	
	대학 2학년 부터	2(1.0)	0(0.0)	2(.4)	
	고등학교 이전부터	32(15.6)	53(18.2)	85(17.1)	
	전혀 못한다	132(64.4)	206(70.8)	338(68.1)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	59(28.8)	52(17.9)	111(22.4)	16.075** (.003)
	주 2회 이상	39(19.0)	59(20.3)	98(19.8)	
	2주 1회	29(14.1)	43(14.8)	72(14.5)	
	한 달에 한번	46(22.4)	54(18.6)	100(20.2)	
	마시지 않는다	32(15.6)	83(28.5)	115(23.2)	
수면 시간	5시간 미만	53(25.9)	84(28.9)	137(27.6)	3.891 (.421)
	6-7시간	106(51.7)	146(50.2)	252(50.8)	
	8시간	33(16.1)	49(16.8)	82(16.5)	
	9시간	6(2.9)	9(3.1)	15(3.0)	
	10시간 이상	7(3.4)	3(1.0)	10(2.0)	
합계		205(100.0)	291(100.0)	496(100.0)	

*p<.05, **p<.01

3.4 피부미용 관리실태

다음 표 4는 피부미용 관리 실태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다. 세안(클렌징) 정도는 '매우 그렇다' 86명(17.3%), '그렇다' 228명(46.0%), '보통이다' 162명(32.7%), '그렇지 않다' 15명(3.0%), '전혀 그렇지 않다' 5명(1.0%)이었다. 피부미용 전공여부에 따른 전공, 비전공 여대생 모두 60% 이상이 피부건강을 위해 세안(클렌징)에 철저히 신경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색조화장 후 이중세안 정도는 '매우 그렇다' 124명(25.0%), '그렇다' 180명(36.3%), '보통이다' 116명(23.4%), '그렇지 않다' 48명(9.7%), '전혀 그렇지 않다' 28명(5.6%)으로, 전체의 61.3%가 색조화장 후 필히 이중세안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피부미용 전공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1). 각질 정리 횟수는 '주 1회'가 155명(31.3%)으로 가장 높았고, '거의 하지 않는다.' 141명(28.4%), '주 2회' 87명(17.5%), '2주 1회' 85명(17.1%), '주 3회 이상' 28명(5.6%)이었다. 피부미용 전공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1). 마사지나 팩 관리횟수는 '거의 하지 않는다.'가 153명(30.8%)으로 가장 높았고, '월 1~2회' 131명(26.4%), '주 1~2회' 113명(22.8%), '2주에 1~2회' 85명(17.1%), '주 3회 이상' 14명(2.8%)이었다. 피부미용 전공여부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1).

[표 4] 피부미용 관리 실태
[Table 4] Skin Care Condition N(%)

구분		피부미용 전공여부		합계	χ^2 (p)
		전공	비전공		
세안 (클렌징)	매우 그렇다	36(17.6)	50(17.2)	86(17.3)	1.505 (.826)
	그렇다	97(47.3)	131(45.0)	228(46.0)	
	보통이다	66(32.2)	96(33.0)	162(32.7)	
	그렇지 않다	5(2.4)	10(3.4)	15(3.0)	
	전혀 그렇지 않다	1(.5)	4(1.4)	5(1.0)	
색조화장 후 이중세안	매우 그렇다	56(27.3)	68(23.4)	124(25.0)	16.318** (.003)
	그렇다	87(42.4)	93(32.0)	180(36.3)	
	보통이다	44(21.5)	72(24.7)	116(23.4)	
	그렇지 않다	14(6.8)	34(11.7)	48(9.7)	
	전혀 그렇지 않다	4(2.0)	24(8.2)	28(5.6)	
각질 정리 횟수	주 1회	74(36.1)	81(27.8)	155(31.3)	26.635*** (.000)
	주 2회	41(20.0)	46(15.8)	87(17.5)	
	주 3회 이상	13(6.3)	15(5.2)	28(5.6)	
	2주 1회	44(21.5)	41(14.1)	85(17.1)	
	거의 하지 않는다	33(16.1)	108(37.1)	141(28.4)	
마사지나 팩 관리횟수	주 3회 이상	4(2.0)	10(3.4)	14(2.8)	14.302** (.006)
	주 1-2회	61(29.8)	52(17.9)	113(22.8)	
	2주에 1-2회	38(18.5)	47(16.2)	85(17.1)	
	월 1-2회	53(25.9)	78(26.8)	131(26.4)	
	거의 하지 않는다	49(23.9)	104(35.7)	153(30.8)	
전문적인 관리 투자기간	1개월 정도	20(9.8)	20(6.9)	40(8.1)	9.402 (.052)
	3개월 정도	33(16.1)	41(14.1)	74(14.9)	
	6개월 정도	18(8.8)	22(7.6)	40(8.1)	
	1년 내내 정기적으로	34(16.6)	29(10.0)	63(12.7)	
	필요시에만 일회성	100(48.8)	179(61.5)	279(56.3)	
자외선 차단방법	선크림을 바른다	160(78.0)	206(70.8)	366(73.8)	13.618** (.009)
	썬글라스, 모자등의 가리개사용	4(2.0)	18(6.2)	22(4.4)	
	낮 시간대 외출삼가	11(5.4)	5(1.7)	16(3.2)	
	야외 스포츠의 제한	2(1.0)	5(1.7)	7(1.4)	
	신경 쓰지 않는다	28(13.7)	57(19.6)	85(17.1)	
합계		205(100.0)	291(100.0)	496(100.0)	

**p<.01, ***p<.001

전문적인 관리 투자기간에 있어서는 '필요시에만 일회성으로'가 279명(56.3%)으로 가장 높았고, '3개월 정도' 74명(14.9%), '1년 내내 정기적으로' 63명(12.7%), '1개월 정도'나 '6개월 정도'가 각 40명(8.1%)이었다. 자외선 차단방법에 있어서는 '선크림을 바른다.'가 366명(73.8%)으로 가장 높았고, '신경 쓰지 않는다.' 85명(17.1%), '가리개 사용' 22명(4.4%), '낮 시간대 외출삼가' 16명(3.2%), '야외 스포츠의 제한' 7명(1.4%)이었다. 피부미용 전공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1).

3.5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인식도

3.5.1 피부건강관리 정보원

다음 표 5는 피부건강관리 정보원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다. '인터넷'이 208명(41.9%)으로 가장 높았고, '대중매체' 114명(23.0%), '가족, 친구 등 지인' 80명(16.1%), '학교' 54명(10.9%), '피부 관리실이나 피부과병원' 40명(8.1%)순으로 나타났다. 피부미용 전공여부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1).

[표 5] 피부건강관리 정보원
[Table 5] Information of Skin Health N(%)

구분		피부미용 전공여부		합계	χ^2 (p)
		전공	비전공		
피부 건강 관리 정보	대중매체(TV, 라디오등)	45(22.0)	69(23.7)	114(23.0)	37.112*** (.000)
	인터넷	84(41.0)	124(42.6)	208(41.9)	
	가족이나 친구	16(7.8)	64(22.0)	80(16.1)	
	학교	38(18.5)	16(5.5)	54(10.9)	
	전문 피부관리실이나 피부과병원	22(10.7)	18(6.2)	40(8.1)	
합계		205(100.0)	291(100.0)	496(100.0)	

***p<.001

3.5.2 피부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음 표 6은 피부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다. 외모에 대한 건강한 피부의 영향정도는 '매우 그렇다.' 216명(43.5%), '그렇다.' 224명(45.2%), '보통이다.' 47명(9.5%), '그렇지 않다.' 7명(1.4%), '전혀 그렇지 않다.' 2명(0.4%)으로, 전체의 88.7%가 건강한 피부가 외모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백식품 및 인스턴트식품의 영향정도에서는 '매우 그렇다.' 110명(22.2%), '그렇다.' 250명(50.4%), '보통이다.' 99명(20.0%), '그렇지 않다.' 34명(6.9%), '전혀 그렇지 않다.' 3명(0.6%)으로 나타나, 전체의 72.6%가 오백 및 인스턴트식품이 피부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였다. 피부미용 전공여부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하루 8잔 이상의 물 섭취의 영향정도는 '매우 그렇다.' 181명(36.5%), '그렇다.' 254명(51.2%), '보통이다.' 53명(10.7%), '그렇지 않다.' 6명(1.2%), '전혀 그렇지 않다.' 2명(0.4%)으로, 전체의 87.7%가 하루 8잔 이상의 물 섭취가 피부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였으며, 피부미용 전공여부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5). 술, 담배, 카페인 음료의 영향정도에서는 '매우 그렇다.' 206명(41.5%), '그렇다.' 230명(46.4%), '보통이다.' 42명(8.5%), '그렇지 않다.' 16명(3.2%), '전혀 그렇지 않다.' 2명(0.4%)으로, 전체의 87.9%가 술, 담배, 카페인 음료가 피부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였다. 비타민, 건강보조식품의 영향정도는 '매우 그렇다.' 65명(13.1%), '그렇다.' 226명(45.6%), '보통이다.' 160명(32.3%), '그렇지 않다.' 42명(8.5%), '전혀 그렇지 않다.' 3명(0.6%)으로, 전체의 58.7%가 비타민, 건강보조식품이 피부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6] 피부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6] Factors that affect the skin health N(%)

구분		피부미용 전공여부		합계	χ^2 (p)
		전공	비전공		
외모에 대한 건강한 피부의 영향정도	매우그렇다	96(46.8)	120(41.2)	216(43.5)	4.115 (.391)
	그렇다	82(40.0)	142(48.8)	224(45.2)	
	보통이다	23(11.2)	24(8.2)	47(9.5)	
	그렇지않다	3(1.5)	4(1.4)	7(1.4)	
	매우그렇지않다	1(.5)	1(.3)	2(.4)	
오백식품 및 인스턴트 식품의 영향정도	매우그렇다	53(25.9)	57(19.6)	110(22.2)	22.153*** (.000)
	그렇다	111(54.1)	139(47.8)	250(50.4)	
	보통이다	37(18.0)	62(21.3)	99(20.0)	
	그렇지않다	2(1.0)	32(11.0)	34(6.9)	
	매우그렇지않다	2(1.0)	1(.3)	3(.6)	
하루 8잔 이상의 물의 영향정도	매우그렇다	83(40.5)	98(33.7)	181(36.5)	12.525* (.014)
	그렇다	108(52.7)	146(50.2)	254(51.2)	
	보통이다	11(5.4)	42(14.4)	53(10.7)	
	그렇지않다	3(1.5)	3(1.0)	6(1.2)	
	매우그렇지않다		2(.7)	2(.4)	
술, 담배, 카페인 음료의 영향정도	매우그렇다	89(43.4)	117(40.2)	206(41.5)	1.333 (.856)
	그렇다	91(44.4)	139(47.8)	230(46.4)	
	보통이다	16(7.8)	26(8.9)	42(8.5)	
	그렇지않다	8(3.9)	8(2.7)	16(3.2)	
	매우그렇지않다	1(.5)	1(.3)	2(.4)	
비타민, 건강보조 식품의 영향정도	매우그렇다	30(14.6)	35(12.0)	65(13.1)	3.154 (.532)
	그렇다	92(44.9)	134(46.0)	226(45.6)	
	보통이다	64(31.2)	96(33.0)	160(32.3)	
	그렇지않다	19(9.3)	23(7.9)	42(8.5)	
	매우그렇지않다		3(1.0)	3(.6)	
합계		205(100.0)	291(100.0)	496(100.0)	

*p<.05, ***p<.001

3.5.3 피부건강에 대한 인식

다음 표 7은 피부건강에 대한 인식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다. 피부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점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피부 관리'가 168명(33.9%)으로 가장 높았고, '충분한 영양과 체질개선' 164명(33.1%), '편안한 휴식' 80명(16.1%), '수면습관' 75명(15.1%), '기능 탁월한 화장품 사용' 9명(1.8%)순으로 나타났다. 피부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에 있어서는 '스트레스'가 163명(32.9%)으로 가장 높았고, '피부 관리에 대한 무관심' 108명(21.8%), '식습관의 불균형 '92명(18.5%), '수면부족' 71명(14.3%), '음주, 흡연, 카페인 음료' 62명(12.5%) 순이었다. 피부 관리가 필요한 피부상태는 '여드름'이 205명(41.3%)으로 가장 높았고, '기미, 주근깨' 104명(21.0%), '피지과다' 98명(19.8%), '민감' 62명(12.5%), '알러지' 27명(5.4%) 순이었으며, 피부미용 전공여부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1). 전문적 관리실을 이용하기 가장 적당한 시기는 '봄'이 147명(29.6%)으로 가장 높았고, '겨울' 110명(22.2%), '상관없다.' 102명(20.6%), '가을' 77명(15.5%), '여름' 60명(12.1%)순으로 나타났다

[표 7] 피부건강에 대한 인식
[Table 7] Awareness of skin health N(%)

구분		피부미용 전공여부		합계	χ^2 (p)
		전공	비전공		
피부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점	수면습관	31(15.1)	44(15.1)	75(15.1)	.920 (.922)
	충분영양과체질개선	69(33.7)	95(32.6)	164(33.1)	
	편안한휴식	30(14.6)	50(17.2)	80(16.1)	
	지속적인피부관리	72(35.1)	96(33.0)	168(33.9)	
	기능탁월화장품사용	3(1.5)	6(2.1)	9(1.8)	
피부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	피부관리에무관심	40(19.5)	68(23.4)	108(21.8)	8.546 (.074)
	스트레스	73(35.6)	90(30.9)	163(32.9)	
	식습관의 불균형	46(22.4)	46(15.8)	92(18.5)	
	수면부족	21(10.2)	50(17.2)	71(14.3)	
	음주,흡연,카페인음료	25(12.2)	37(12.7)	62(12.5)	
피부관리가 필요한 피부상태	여드름	105(51.2)	100(34.4)	205(41.3)	38.651*** (.000)
	기미, 주근깨	22(10.7)	82(28.2)	104(21.0)	
	알러지	4(2.0)	23(7.9)	27(5.4)	
	민감	23(11.2)	39(13.4)	62(12.5)	
	피지과다	51(24.9)	47(16.2)	98(19.8)	
전문적 관리실을 이용하기 가장 적당한 시기	봄	64(31.2)	83(28.5)	147(29.6)	2.502 (.644)
	여름	27(13.2)	33(11.3)	60(12.1)	
	가을	29(14.1)	48(16.5)	77(15.5)	
	겨울	40(19.5)	70(24.1)	110(22.2)	
	상관없다	45(22.0)	57(19.6)	102(20.6)	
합계		205(100.0)	291(100.0)	496(100.0)	

***p<.001

3.6 고찰

조사대상자는 총 496명으로 1학년 260명(52.4%), 2학년 216명(43.5%), 3학년 17명(3.4%), 4학년 3명(0.6%)이었다.

외모 관심도는 '매우 높다.' 106명(21.4%), '높다.' 195명(39.3%), '보통' 176명(35.5%), '낮다.' 16명(3.2%), '매우 낮다.' 3명(0.6%)으로 나타났다. 피부미용 전공여부에 따라서는 외모의 관심도가 '매우 높다'는 항목에서 전공 여대생들이 비전공 여대생보다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외모관심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피부미용 서비스 경험은 '있다.' 285명(57.5%), '없다.' 211명(42.5%)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인 '여성의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지식 및 행위' 명은진[1]과 하문선[8]의 연구에 의하면 피부 관리의 관심과 욕구는 높은 반면에 비해서 경험이 많지 않은 이유는 본인의 경제력과 직결되어 부담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공통적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전공자들의 관심도와 비례하여 비전공자들에 비해 서비스 경험은 많았지만 현재도 대체적으로 경제적 부담감이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피부 관리 이유는 '자신의 만족감'이 362명(73.0%), '타인과 미적 경쟁심' 58명(11.7%), '웰빙 트렌드' 34명(6.9%), '학교생활' 24명(4.8%), '이성 친구' 18명(3.6%)순이었다. 이혜원[7]의 '대인관계 및 심리적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라는 조사결과와 유사하였다.

피부상태를 조사한 결과 '매우 좋다.' 18명(3.6%), '좋다.' 96명(19.4%), '보통이다.' 241명(48.6%), '나쁘다.' 129명(26.0%), '매우 나쁘다.' 12명(2.4%)으로 응답해 전체의 23.0%가 현 피부상태가 '좋다'고 인식 하였다.

피부건강 관심도에 있어서는 '매우 높다.' 104명(21.0%), '높다.' 211명(42.5%), '보통이다.' 161명(32.5%), '낮다.' 17명(3.4%), '매우 낮다.' 3명(0.6%)으로 나타나 전체의 63.5%가 피부건강에 대한 관심정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피부의 문제점으로는 '여드름, 넓은 모공, 피지'가 226명(45.6%)으로 가장 높았고, '색소침착' 149명(30.0%), '주름 및 탄력저하'가 57명(11.5%), '건성, 아토피성 피부' 36명(7.3%), '예민, 모세혈관 확장' 28명(5.6%)순으로 나타났다.

생활실태에 대해 분석결과 흡연여부 및 시기에 있어서는 '전혀 못한다.'가 338명(68.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고등학교 이전부터' 85명(17.1%), '대학 입학 전부터' 58명(11.7%), '대학 1학년부터' 13명(2.6%), '대학 2학년부터' 2명(0.4%)순으로, 대체적으로 흡연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횟수는 '마시지 않는다.'가 115명(23.2%)으로 가

장 높았고, ‘주 1회 이상’ 111명(22.4%), ‘한 달에 한번’ 100명(20.2%), ‘주 2회 이상’ 98명(19.8%), ‘2주 1회’ 72명(14.5%)순으로, 대체적으로 음주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2006년도에 보고된 손희애[5]의 여대생 피부 및 체형 조사 항목 중 일반사항에서 ‘비흡연’ 98.1%, ‘음주 안함’ 54.4%인 경우와 비교하면 본 연구대상자의 흡연과 음주 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수면시간에 있어서는 ‘6～7시간’이 252명(50.8%), ‘5시간미만’ 137명(27.6%), ‘8시간’ 82명(16.5%), ‘9시간’ 15명(3.0%), ‘10시간 이상’ 10명(2.0%)순으로, 대체적으로 6～7시간 정도 수면을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피부미용전공 여대생과 비전공 여대생 모두 50% 이상이 하루 6～7시간 정도 수면을 취하는 것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각질 정리 횟수에 있어서는 ‘주 1회’가 155명(31.3%), ‘거의 하지 않는다.’ 141명(28.4%), ‘주 2회’ 87명(17.5%), ‘2주 1회’ 85명(17.1%), ‘주 3회 이상’ 28명(5.6%)순으로, 대체적으로 주 1회 정도 각질 정리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피부미용 전공 여대생의 경우 ‘주1회 이상 각질 정리’가 62.4%였으나, 비전공 여대생의 경우 ‘2주1회’와 ‘거의 하지 않는다.’가 51.2%로 이중세안의 경우처럼 전공지식의 반영이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p<.001$).

전문적인 관리 투자기간에 있어서는 ‘필요시에만 일회성으로’가 279명(56.3%)으로 가장 높았고, ‘3개월 정도’ 74명(14.9%), ‘1년 내내 정기적으로’ 63명(12.7%), ‘1개월 정도’나 ‘6개월 정도’가 각 40명(8.1%)이었다. 피부미용 전공과 비전공 여대생 모두 대체적으로 필요시에만 일회성으로 전문적인 관리에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인터넷 부분을 별도항목으로 조사한 결과 대중매체의 항목보다 약 2배의 높은 결과로 20대 여대생의 인터넷 사용 의존 및 호응도가 절대적임을 보였다. 이는 배수현[2]의 ‘대중매체’ 35%, ‘인터넷 등 컴퓨터통신’ 22.8%였던 조사와 대비하면 여대생들의 문화 트렌드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 사료된다. 피부미용 전공과 비전공 여대생 모두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많이 얻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부항목에서 전공 여대생은 대중매체나 학교의 항목이 높은 반면에 비전공 여대생은 대중매체나 가족, 친구 등 지인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것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1$). 배향선[3]의 피부미용계열과 타 계열 학생의 공동조사에서도 미용계열의 학생이 ‘대중매체’, ‘전문서적’, ‘학교수업’ 등의 항목이 높은 결과와 유사하였다.

피부 관리가 필요한 피부상태로는 ‘여드름’이 205명(41.3%)으로 가장 높았고, ‘기미, 주근깨’ 104명(21.0%), ‘피지과다’ 98명(19.8%), ‘민감’ 62명(12.5%), ‘알러지’ 27명(5.4%) 순으로, 대체적으로 여드름에 대한 관리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부미용 전공자는 여대생의 전형적인 여드름이나 피지과다 상태의 피부 관리가 가장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비전공자는 여드름이나 피지과다로 인한 피부 관리 항목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기미, 주근깨와 같은 색소 피부 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항목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p<.001$).

4. 결론 및 제언

피부미용전공 여학생들과 비전공 학생들의 피부건강 관리의 인식 및 관리 행위에 관한 차이점 및 관련성 등을 조사,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외모 관심도는 60.7%가 ‘높다.’고 응답하였으며, 전공 여대생들이 비전공 여대생보다 유의하지만, 외모관심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피부미용 서비스 경험은 ‘있다.’ 57.5%, 피부 관리 이유는 ‘자신의 만족감’이 73.0%로 가장 높았다.

둘째, 피부상태에 있어서는 23.0%가 ‘좋다’고 하였고, 전공 여대생이 비전공 여대생에 비해 피부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1$). 피부타입은 복합성＞건성＞지성＞정상 순으로 나타났다. 피부미용 전공 여대생은 복합성 피부, 비전공 여대생은 건성 피부가 많은 것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p<.05$). 피부 문제점으로 전공 여대생들은 대체적으로 여드름, 넓은 모공, 피지의 문제점이 있는 반면에 비전공자들은 색소침착(기미, 주근깨, 잡티, 다크써클)에 문제점이 있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1$).

셋째, 생활실태에 대해 분석결과 흡연여부 및 시기에 있어서는 ‘전혀 못한다.’가 68.1%로 가장 높았다. 피부미용 전공여부에 따라서는 전공 여대생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시작한 경향이었고, 비전공 여대생이 상대적으로 흡연을 일찍 시작한 것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5$). 음주횟수는 대체적으로 음주를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피부미용 전공 여대생은 ‘주 1회 이상’이 높은 반면 비전공 여대생은 마시지 않는 여대생이 높은 것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1$). 수면시간은 ‘6～7시간’이 50.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넷째, 피부미용 관리 실태에서 피부건강을 위한 ‘세안(클렌징)’에 63.3%가 철저히 신경을 쓰는 것으로, 피부미용 전공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1$). 각질 정리 횟수는 대체적으로 ‘주1회’ 정도가 피부미용 전

공여부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01). 피부미용 전공 여대생의 경우 월1~2회 정도 마사지나 팩 관리횟수가 높은 반면에 비전공 여대생의 경우 '거의 하지 않는다.' 항목이 높은 것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1).

다섯째, 피부건강관리 정보원으로 인터넷>대중매체>가족, 친구 등>학교>피부과병원 또는 피부 관리실 순으로 나타났다. 피부미용 전공여부에 따라서는 피부미용 전공 여대생의 경우 대중매체나 학교의 항목이 높은 반면에 비전공 여대생은 대중매체나 가족, 친구 등 지인을 통해 정보를 많이 얻는 것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1).

여섯째, 피부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외모에 대한 건강한 피부의 영향정도에 있어서는 88.7%가 건강한 피부가 외모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오백식품 및 인스턴트식품의 영향정도에 있어서는 72.6%가 오백식품 및 인스턴트식품이 피부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였으며, 전공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도 보였다(p<.001).

일곱째, 피부건강에 대한 인식으로 피부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점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피부 관리를, 피부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에 있어서는 스트레스나 피부 관리에 대한 무관심으로 조사되었다. 관리가 필요한 피부상태로 전공자는 여대생의 전형적인 여드름이나 피지과다 상태의 피부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비전공자는 기미, 주근깨와 같은 평소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항목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1).

최근의 피부미용에 관련한 소비는 고기능 및 고효율, 친환경, 저가격, 고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가치중심적 소비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은 점도 전공자들에 대한 심화 교육의 필요성과 문제점으로 검토되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생활환경과 특정지역에서의 유사한 20대 초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교적 짧은 연구기간으로 연구를 수행한 것이 제한점이라 할 수 있다. 향후 연령별 전공자의 참여와 유전, 지역, 계절, 개인별 식생활습관 및 환경 등의 각종 변수 등을 함께 고려하여 고찰 한다면 보다 의미 있는 연구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References

[1] Myong, Eun-jin, A Study of on Knowledge and Behavior for skin Health Care: Focusing on women in their 20s and 30s. master thesis. Yonsei University, 2000.

[2] Bae, Soo-Hyun, Moon, In-Ok, Kim, Yeon-Hee, Relationships Between Variables Related to Skin Health and Skin Health Behavior in Female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Vol. 20, No.1, pp147-158, 2003.

[3] Bae, Hyang-Sun, College And University Girl Students' Awareness and Behavior of Skin Care, The Korean Society for Aesthetics and Cosmetology, Vol.3, No.1, pp177-188, 2005.

[4] Baek, Kyoung-Jin, Kim, Mi-Young, Make-up Behavior and Influential Factors: Focusing on Clothing Involvement, Age and Face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Vol.28, No.7, pp892-903. 2004.

[5] Sohn, Hee-ae, A study on the realities of skin care and body-shape management of college students and their preference, master thesis. Chung-Ang University, 2006.

[6] Shin, Eun-Jung,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on Skin Health Care of High School Girls. master thesis. Yeungnam University, 2007.

[7] Lee, Hye-won, A Study on the Women's Understanding of Skin Care and Preference. master thesis. Distance Learning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9.

[8] Ha, Moon-sun, A Study on the recognition and current status of skin care of the working women. master thesis. Distance Learning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7.

[9] Hong, Jin-I, Health State of Women's Skin and Relevant Life Style. master thesis. Distance Learning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7.

[10] Cash, T. F. & Pruzinsky, T. Body images: Development, Deviance, and Change, New York; The Guilford Press. p198-201, pp251-252, 1990.

최 성 임(Choi, Sung-Im) **[정회원]**

- 2005년 8월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피부비만관리학 석사
- 2009년 8월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이학박사(미용건강 전공)
- 2005년 9월 ~ 현재 : 한국미용건강학회 수석부회장, 회장역임
- 2009년 3월 ~ 현재 : 명지전문대학 피부미용과 교수

<관심분야>
피부미용, 미용건강

권 영 낭(Kwon, Young-Nang) **[정회원]**

- 2011년 2월 : 한성대학교 에스테틱 전공(예술학 석사)
- 2011년 3월 : 권영낭 피부미용연구소 대표

<관심분야>
피부미용, 미용건강

이 계 영(Lee, Geai-Young) **[정회원]**

- 2011년 2월 : 고신대학교 보건미용전공(보건미용석사)
- 2007년 3월 ~ 현재 : 순천제일대학 뷰티케어과 교수

<관심분야>
피부미용, 미용보건